

# 터부, 금기와 위반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사람들의 전통과 하느님의 계명(마르 7,1-23)

안영주\*

## 【 차 례 】

- I. 들머리에
- II. 형상분석: 객체 기호학을 넘어 주체 기호학에서 발화행위 기호학으로
- III. 마르코 복음 7장 1-23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IV. 터부에서 통(通)의 기호학으로

## 국문초록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터부와 관련하여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른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등의 이분법적 구분은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들에서 예수라는 행위자가 타파하려고 했던 핵심 과제들 중 하나였다. 율법 우선주의는 자칫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킬 수 있는 무자비한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인간을 참된 주체로 세우기 위해, 사회 정치적으로 횡행하는 금지와 통제로써 인간을 좌지우지 하려는 허용과 금지의 메커니즘에 휘둘리지 않고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뚝 서기 위해, 어떤 해법이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마르코 복음 7장 1-23절에서는 율법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여 억압하려는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의 계명을 일깨우는 예

---

\* 언어학 박사(프랑스 리옹2대학교), 통번역가

수 사이에 대립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이 대립만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성경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인 분석은 대립을 넘어서 참된 만남으로 이끄는 형상들의 행보를 통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분쟁과 억압과 대립(저항)을 낳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제3의 구도 곧 서로가 관계를 맺는 구도로 독자를 나아가게 해 줄 것이다.

본고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파리학파(Ecole de Paris)에 속하는 기호학의 한 분파로서, 프랑스 리옹에서 성경학자들이 그레마스 이론을 성경에 적용시키면서 개발한 기호학적인 독서이론이다. 이 학자들은 리옹학파라고 불렸는데, 성경텍스트를 위주로 형상과 형상들의 행보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키며 연구하였다. 특히 형상들의 행보 끝에 맞닥뜨리게 되는 피규랄(figural) 이론은 독서 끝에 탄생하는 주체 이론과 맞닿아 있다. 이 기호학적 독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분법 구도에서 시작하여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관계의 구도로 독자를 나아가게 하는 탁월한 도구라 하겠다.

열쇠어 : 터부, 행복, 불행, 파리학파, 시니피앙, 형상, 피규랄, 발화문, 발화행위, 발화행위 심급

## I. 들머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모든 사회에는 인간을 억압하는 터부가 존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터부를 지탱하는 논리는 불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의 노여움을 사 불행한 재난이 반드시 내린다는 어처구니없는 믿음 말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터부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터부에 함축된 이 믿음은 과연 신뢰할만한 것일까? 질문은 오히려 달리 제기되어야 한다. 이분법적 구도인 허용과 금지의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 그것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끈다면, 세상에는 왜 그다지도 많은 열망과 위반의 사례들이 존재해왔으며 또 존재하는 것일까? 그들이 모두 반역만 일삼는 자들이라서? 혹은 모두 우매한 집단지성에 떠밀려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일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등의 이분법적 구분은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들에서 예수라는 행위자가 타파하려고 했던 핵심 과제들 중 하나였다. 율법 우선주의는 자칫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킬 수 있는 무자비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을 참된 주체로 세우기 위해, 종교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횡행하는 금지와 통제로서 인간을 좌지우지 하려는 허용과 금지의 메커니즘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우뚝 서기 위해, 어떤 해법이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야 할까.

마르코 복음 7장 1-23절에서는 율법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여 억압하려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의 계명을 일깨우는 예수 사이에 대립을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이 대립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성경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인 분석은 대립을 넘어서 참된 만남으로 이끄는 형상들의 행보를 통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분쟁과 억압과 저항을 낳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제 삼의 구도 곧 서로가 관계를 맺는 구도로 독자를 나아가게 해 줄 것이다.

본고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프랑스 리옹에서 성경학자들이 탄생시킨 기호학적 독서이론이다. 이 학자들은 리옹학파라고 불렸는데, 성경텍스트를 위주로 형상과 형상들의 행보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키며 연구했다. 특히 형상들의 행보 끝에 맞닥뜨리게 되는 피규랄(figural) 이론은 독서 끝에 탄생하는 주체 이론과 맞닿아 있다. 이 기호학적 독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분법 구도에서 시작하여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한 관계의 구도로 독자를 나아가게 하는 탁월한 도구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논자가 채택한 기호학적 독서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용어 터부의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한 형상 분석을 통해 터부를 도식화하면서 행위자 형상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어서 마르 7,1-23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만나는 형상들과 형상들의 행보를 살펴보면서

터부와 관련된 행위자들을 재 정의한 후, 발화문과 발화행위에 대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 II. 형상분석: 객체 기호학을 넘어 주체 기호학에서 발화행위 기호학으로

성경에 대한 기호학적 독서는 그레마스 기호학 발생 초기부터 그레마스가 관심을 기울였던 한 분야다.<sup>1)</sup> 그레마스가 제안한 설화문법은 초기부터 성경 텍스트 분석에 폭넓게 적용되었는데, 이 적용이 규범도식에 변형을 받게 된다. 성경 텍스트들이 설화문법의 일반모델인 가치객체를 추구하는 주체( $S \rightarrow Ov$ )라는 주체의 정의를 정면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다.<sup>2)</sup> 예를 들어, 치유 이야기 끝에 나타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sup>3)</sup>와 같은 형식은 기적(가치객체)의 추구보다는 기적을 전후로 해서 맺어지는 신뢰관계와 상호주체관계의 변화로 이야기의 축을 이동시켜버렸다. 몸의

---

1) L. Panier, “Sémiotique et études bibliques, évolutions méthodologiques et perspectives épistémologiques”, in *Destini del Sacro*, Congrès de l’AISS, novembre 2006(루이 빠니에, 안영주 역, 『기호학과 성경 연구: 방법론의 발전과 인식론의 관점』, 『신학전망』 170,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0, 44~73쪽) 참조.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리옹의 성경학자들을 주축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기호학적인 독서와 이론을 연구하는 센터(까디르[CADIR, 종교담화센터], 리옹 가톨릭대학 소속)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성경에 대한 기호학적 독서 이론으로서 파리학과(Ecole de Paris)에 속한다. 한국에는 1990년대 서인석 신부님이 도입했다.

2) “성경 이야기들에 설화 모델을 적용시킨 것은 몇 가지 특수성을 드러나게 했다. 먼저 콩트에서 구상되고 실험된 이 설화모델은 근본적으로 주체와 객체(가치객체)의 관계와 이 관계의 변화에 기초를 둔다. 주체들의 관계는 쟁의와 경쟁, 계약 체결, 최고의 가치에 대한 합의로 인해 주체들 사이에 유통되고, 교환하는 객체들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이것을 객체 기호학(sémiotique objectale)이라 말할 수 있다. 결핍과 추구, 획득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는 열망한 객체들의 장치가 성경에 자주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은 규범 도식의 변형을 통해 또는 서술 형태들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결핍·결핍의 해결’이라는 일반 모델에 저항한다.”(Ibid., 같은 글, 106쪽)

3) J. Delorme, “Jésus et l’hémorroïsse ou le choc de la rencontre(Mc 5,25-34)”, *Sémiotique & Bible* 44(1986).

변화(치유)를 추구했는데 선포와 말의 행보로 이어져버렸다. 성경 이야기들은 기본 설화 행보들의 방향전환에서부터 의미하기를 즐기는 듯, 가치 객체 추구가 실패하거나 주체를 움직이게 했던 객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한 주체가 세워지고 인정됨으로써, 주체에 대한 질문이 가치 객체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으며 달리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성경 텍스트에 대한 설화문법의 적용은 가치 혹은 (가치)객체의 기호학(sémiotique objectale)과는 구분되는 주체 기호학(sémiotique du sujet)의 구상을 위해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양상(modalité: 능력, 의지, 의무, 지식, 믿음)과 진리판단(véridiction)의 문제<sup>4)</sup>를 재검토할 요소들을 제시해주었다. 이렇게 프랑스 리옹을 중심으로 까디르 회원들<sup>5)</sup>은 기존의 설화문법을 수정하면서 독자적인 주체 기호학을 구상해나갔다.

또한 비유-이야기들의 분석은 담론의 형상충위(plan figuratif)의 구조화에 기여하며 발화장치(나 여기 지금)를 텍스트 분석에 끌어들이면서, 주체 기호학의 구상에서 반드시 행동과 정념(passion)의 대립을 거치지 않고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비유는 이야기 차원으로 형상의 단위들(행위자, 공간, 시간)을 통해 이미 사회나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약간 뒤틀어 소개한다. 그래서 독자는 비유의 설명 혹은 해석부분<sup>6)</sup>에서 필연적으로 알레고리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 판독해내려 하지만, 비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sup>7)</sup> 곧 형상충위가 주제화나 상징적 의미로 축소될 수 없게 하는 이 측면은 ‘시니피앙’의 연쇄 이론,<sup>8)</sup> 말하자면 형상 행보를 통한 텍스트의 설화 충위와 내용의 형상 충

4) 진리판단(진위) 사각형을 발화행위와 연결시킨 이론 설명과 관련된 최근 연구로는 안영주, 「형상과 만남: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사탄의 태양아래’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기호학 연구』 29, 한국기호학회, 2011, 102~107쪽 참조.

5) CADIR(종교담화분석센터의 약어)는 프랑스 리옹 가톨릭 대학 부속 연구소를 지칭한다. 까디르 회원들은 또한 초기에 자신들을 groupe d'Entrevrernes 라고 지칭하며 ‘기호와 비유’(Signe et Parabole)라는 책을 발간했다.

6) 예를 들어 마르 4,1-20 참조. 여기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나, 그 설명부분이 비유를 해명해주지는 못한다.

7) J. Delorme, DSB, article “Sémiotique”, col. 318~319.

위 사이의 긴장이나 균열 속에서 발화적 측면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sup>9)</sup> 이것은 텍스트에서 설화분석, 담화분석, 발화행위분석을 모두 요구하며, 형상의 세 측면인 주제적 측면, 자연세계를 참조하는 측면, 피규랄 측면과 닿아있다. 설명과 해석과 형상 곧 상식과 상징과 발화행위가 어우러지는 형상들의 행보를 따르며 독자는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이 불법적 구도를 탈피하고 관계의 구도로 나아가면서 독서 도중 곳곳에서 출몰하는 발화행위 심급(instance d'énonciation)에 의해 호출될 것이다.

### 터부(taboo),<sup>10)</sup> 금지와 위반의 메커니즘의 도식화

- 8) 박순자, 「성서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 마태 8,23-27 제압된 폭풍」, 『기호와 기호학』, 황석자 편저,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180~205쪽; Park, S.-J., *La transformation énonciative de l'objet de valeur et l'objet énonciatif, L'approche sémiotique de quelques récits évangéliques*, Sarrebruck, EUE, 2011, p.345 참조.
- 9) 형상행보를 거친 형상의 발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안영주, 「수치심과 폭력 그 해결점을 찾아서: 게라사에서 일어난 일(마르 5,1-20)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 연구』 33, 한국기호학회, 2012, 289~291쪽 참조.
- 10) “금기(禁忌) 또는 터부(taboo)는 민간신앙에 있어서 신성한 것을 위하여 부정(不淨)한 물건에 접촉을 금하는 기회(忌諱, 꺼리고 싫어하는) 행위이다. 접촉하면 그것을 더럽히고 또는 스스로 부정에 감염하여 어떠한 화가 몸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진결재(精進潔齋), 재계목욕(齋戒沐浴) 등이 금기의 중심인데 죄를 씻고 심신(心身)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이며 기회하고 근신하는 생활 상태이다. 부정(不淨)이나 더러운 것에 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며 나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금제적(禁制的) 요소가 금기에 있다. ... 모든 일을 삼감으로써 화를 면하자는 것이다. 터부는 미신적인 관념이나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여 어떤 행동이나 말을 금하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 부정한 물건은 사람이나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터부가 된다.”(위키백과 참조) “금기- 일상생활이나 종교적 의례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접촉이나 언행을 제한하는 관습. 터부 어떤 행위나 대상을 신성하다거나 위험하다는 의례적인 구분에 따라 그 행위나 대상의 사용을 금하는 것. 통가어로는 tabu, 마오리어로는 tapu. tabu라고도 씀. - 금기라고 흔히 번역된다. ‘터부’라는 용어는 원래 폴리네시아어이며 1771년 통가 섬을 방문한 제임스 쿡 선장이 영어권에 소개하여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터부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실제로는 모든 문화권에 존재한다. ... 여러 문화권에서 터부가 나타남으로써 이를 비교·분석·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연구가 널리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탁월한 연구자로는 윌리엄 로버트슨 스미스, <황금가지 The Golden Bough(1907~1915)의 제임스 G. 프레이저 경, 빌헬름 분트, <토텐과 터부 Totem and Taboo(1913)의 지크문트 프로이트 등이 있다. 프로이트는 터부가 이중적인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무의식적

정의1. “어떤 사회에서 신성(神聖)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접근이나 접촉을 금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금하거나 꺼리는 일. 그것을 어기면 신의 노여움을 사서 불행한 재난이 내린다고 믿는다.”(국어사전, 명사의 뜻)

정의2. “터부는 이중적인 사회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갈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지그문트 프로이트, 다음백과 참조)

정의3. “모든 사회의 터부는 사회질서에 있어 중요하고 사회통제의 일반체계에 속하는 대상 및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다음백과)

이 세 가지 정의는 터부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보여준다. 정의1로는 터부의 설화도식<sup>11)</sup>을 세울 수 있다. 정의2는 무의식세계에서 터부는 끊임없이 주체가 획득하고자 갈망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정의3은 설화도식의 조종단계를 세분화해준다. 모든 사회에서 터부는 사회질서 및 통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

으로 끝없이 갈망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외견상 불합리하게 보이는 터부의 속성을 가장 독창적으로 설명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관점을 가장 보편적인 터부라고 할 수 있는 근친상간의 터부에 직접 적용했다. 터부에 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설명은 없지만 모든 사회의 터부는 사회질서에 있어 중요하고 사회통제의 일반체계에 속하는 대상 및 행위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다음백과 참조)

- 11) 설화도식(schema narratif)과 설화프로그램(programme naratif)의 용어선정은 박인철, 『파리 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201쪽 이하 참조.

### <터부의 설화도식>

조종	역량	실행	비준
어떤 사회의 믿음(조종자)	[주체 $\cup$ 객체 $\rightarrow$ 주체 $\cap$ 객체]	신의 노여움	신의 노여움
	접근/접촉/말하기		(부정적 비준)

‘어떤 사회’에 통용되는 믿음이 조종자 역할을 담당한다. 관습이나 전통, 미신적 관념이 여기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히 누가 언제 어디서 말했는지 모호하며, 그 내용도 정확히 한정할 수 없어, 딱히 그 담화를 보증할 ‘말하는 주체’가 필요 없는 집단형태의 복수 주체다. 조종자는 부정적 비준을 내세워(신의 노여움과 불행한 재난) 모호한 두려움을 조장하여 개인 주체가 스스로 신성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접근 혹은 접촉하기를 삼가게 하고 말하기조차 꺼리게 한다. 여기서 대상인 가치 객체는 ‘~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그래서 극단의 경우 신성하거나 부정한 것이라고 조종자가 정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종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빌미로 부정적 비준을 앞세워 작용주체에게 객체에 대한 두려움을 선협적으로 심어주어 그 실행을 원천에서 봉쇄해버린다면, 인간주체는 통제의 대상인 객체 곧 목적적 존재가 아닌 수단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바로 여기서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동티와 징벌을 각오하고 터부에 맞서 저항하며 끊임없이 위반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도식에는 비준 단계에 모호함이 있다. 금지를 위반했을 때, 신의 노여움으로 불행한 재난이 반드시 내린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라 추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준하는 이를 가상의 ‘신’으로 규정하고 신의 노여움으로 불행한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추정적 확신을 확산시키는 것은 집단 주체인 조종자다.

이렇게 조종자와 가치객체, 비준까지 모두가 모호한 이 도식에서 단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 작용주체의 행동과 말이 역량 단계에서 제재



를 받는다는 것이다. 행하지 않을 의무(devoir ne pas faire)를 명받았음에도 금지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갈망하므로(행할 의지, vouloir faire) 주체는 두 양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된다. 터부를 믿는 개인 주체는 금기시된 어떤 것과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집단 형태의 복수 주체가 규정한 부정적 비준(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이나 말에서 제재 받는 동시에, 끊임없이 금기시된 것을 위반하려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위의 도식의 중점은 실행단계에 있지 않고 역량단계에 있다. 터부로 지배하는 사회는 개인 주체를 근거 없는 모호한 믿음이 부추기는 두려움으로 조종하고 속박한다.

이 도식에서 도출된 형상은 다음과 같다.

- 터부를 조장하는 복수주체(조종자)
- 터부에 지배받는 동시에 끊임없이 갈망하는 개인 주체
- 터부의 대상(가치객체)
-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형상이다.

터부는 고대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문화권에서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민간신앙이 널리 유포된 비문명사회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두려움’을 조장하여 해석과 행동의 방향을 선(先) 규정하는 규정이나 관습 뒤에 숨은 불특정 다수의 조종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이 권력(정치, 경제, 사회, 종교)과 야합하게 될 때, 개인 주체를 그들의 이해(利害)에 따라 좌지우지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제재와 통제의 대상 곧 객체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아래에서 분석하게 될 마르코 복음 7장 11-23절에서는 특히 행위자 형상들의 행보를 살펴 보면서 이 형상들이 어떤 변형을 겪으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대립과 저항만이 터부에 대한 대안일까? 마르 7,1-24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은 분쟁과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제3의 구도 곧 관계의 구도를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sup>12)</sup>

### III. 마르코 복음 7장 1-23절<sup>13)</sup>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1. 문맥과 단락 나누기

마르코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예수와의 논쟁을 전하는 이 일화(7,1-23)는 갈릴래아에서의 다섯 논쟁(2,1-3,6)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11,27-12) 사이에 있으며, 이 논쟁들에 이어 예수는 죽임을 당한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과의 논쟁은 예수를 죽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일화는 위의 두 논쟁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논쟁을 전하며, 유다 지역에서의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과 티로 지역인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사이에 배치되면서, 문맥상 중요한 정점 역할을 한다. 이 논쟁 끝에 예수가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티로)으로 떠나므로, 예수에게 이방인 선교의 명분을 세워준 것이 이 논쟁이라고 추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야기 안에서도 빵이 문제가 된다.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문맥 안에서의 단절과 연속은 이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

12) 터부의 설화도식에 대한 대안인 제3의 구도에 대해서는 본고의 형상분석에서 지식의 벽(*mur de savoir*)과 관련된 말의 충격(*force énonciative*) 부분과 결론부인 ‘터부와 통(通)’의 기호학<sup>12)</sup>에서 언급한 ‘말씀’으로 고려된 하느님의 계명 참조. 지면상의 이유로 본고에서는 도식을 실지 못했다. 이것은 터부를 주제로 한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13) 마르 7,1-23의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는 병행구절(마태 15,1-20)이 있다. 본고에서는 마르코 복음의 일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마르코가 마태오와는 달리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으며, 이 복음서가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의 기초텍스트라는 점,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은유적 문체로써 ‘더러운 손’에서 출발한 논쟁이 유대인 세계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명쾌히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이 논고에서 출발하여, 마태오 복음의 텍스트와 텍스트간 비교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병행구절로 보이는 두 일화가 콘텍스트에 따라 어떤 의미를 생산해내며, 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 성경본문 ><sup>14)</sup>

7,1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그분께 몰려왔다  
가, 2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빵)<sup>15)</sup>  
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  
의 전통을 지켜(tenant ferme),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으  
며, 4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  
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돛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이다. 5 그  
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분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  
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빵)을 먹습니까?”

6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옳게 예언하  
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들로는 나를 공경하지  
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그들은 사람들의 규정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8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vous tenez ferme) 것이다.” 9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pour stabiliser)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  
버린다(vous rendez bel et bien invalide). 10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하여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11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12 그러  
면서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 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13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14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  
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comprendre). 15 사람 밖에서 몸 안  
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

14) 성경본문(마르 7,1-23) 번역은 『성경』(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05)과 J. Delorme(*L'heureuse annonce selon Marc, Lecture intégrale du 2<sup>e</sup> évangile I*, Paris, Montréal: Cerf, médiapaul, 2007, pp.471~472)가 제안하는 그리스어 직역 참조.

15) 음식을 빵으로 번역한 것은 셈어의 표현을 직역한 것이다. 창세 37,25; 탈출 2,20; 루카 14,1 참조.

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sup>16)</sup>”

17 그분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18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tout ce qui)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19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뱃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모든 음식[aliments]을 깨끗이 하면서 (purifiant)<sup>17)</sup>”) 20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들, 도둑질들, 살인들, 22 간음들, 탐욕들, 악의들,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23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스어 원본<sup>18)</sup>에서 ‘예수’의 이름은 제자들이 파견에서 돌아왔을 때 (6,30) 언급되고는 3인칭 대명사 ‘그’로 지칭되며, 8,27에 가서야 다시 나타나다. 곧 이 일화에서 예수는 이름이 아니라 ‘그’로만 지칭된다. 또한 이 일화는 예수가 오천 명을 먹이고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하여 (6,45-52) 도착한 겔네사렛에서 행한 수많은 치유 직후에 배치된다. 예수의 신성과 하느님의 이름(‘나다’<sup>19)</sup>)이 계시된 직후에 놓인 이 일화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텍스트에서 하느님의 계명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옹호하는 조상들의 전통의 대립을 사람의 전통

---

16) 16절은 대부분의 사본에서 빠져있다.

17)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분사를 주격(katarizôn)으로 읽는다.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18절 앞부분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에 연결시켰다. 이것은 “그가 정화 시키다”(katarizei)라는 이본과 함께 더 명확해진다. 그런데 권위가 좀 떨어지는 수사본들에서는 중성 katarizon으로 읽으면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본들은 마르코의 텍스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텍스트는 모든 음식의 정화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텍스트다.(마태 15,17과 비교. 마태오는 2절과 20절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기”에 논점을 제한한다.)

18)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참조.

19) 6,50에서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다’는 탈출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 신명 32,39; 이사 41,4; 43,10.13 참조)를 연상시킨다.(주석성경 신약, 179~180쪽 각주 46 참조)

과 하느님의 말씀의 대립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예수는 처음부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위선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이 가면을 벗고 말의 주체로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이 일화는 새 행위자(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몇 사람)가 처음에(1절) 등장하고 24절에서 예수가 티로 지방으로 떠나므로(장소의 변화) 문맥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단락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의 공간이동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1-13절 예수에게 물려오는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  
(조상들의 전통과 하느님의 계명; 입술과 마음)

14-16절 군중을 가까이 불러  
(비유; 사람을 더럽히는 것; 들을 귀)

17-23절 군중을 떠나 집으로,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안에서 나오는 것;  
배와 마음)

2단락과 3단락은 비유와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첫째 단락과 분명히 구분된다.

## 2. 설화분석과 행위자 형상들

이 일화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에게 제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따져 묻는 것으로 시작된 논쟁이다. 그런데 텍스트 마지막에 예수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일화에서 정결 문제는, 물로 손을 씻는 정결예식(외적 정결)을 어긴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것에서 시작된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물로는 씻어낼 수 없는 사람의 내적정결 문제 곧 모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확장되면서 변형을 겪는

다. 이 변형 과정에서 정결예식과 관련된 모든 터부는 그 존재의미를 잃고 와해될 것이다.

먼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관점을 설화 프로그램(Programme Narratif, 이하 PN으로 약칭)으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ccc}
 & S \rightarrow Ov(\text{빵}) & \text{비준(정결/부정)} \\
 \text{하위PN-(외적)정결PN} & \downarrow \uparrow & \\
 \text{조상들의 전통} \Rightarrow \text{유다인}\{(\text{손}^{20}) \cup \text{정결예식} \rightarrow (\text{손} \cap \text{정결예식})\} & & 
 \end{array}$$

사람이 빵을 먹는 것은 본래적 생명보존 행위다. 신체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이 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빵을 먹는 것을 정결 문제와 직결시킨다. 이 외적 정결PN은 위에서 살펴본 터부의 설화 도식과 닮아 있다. 조종자가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복수 주체라는 것, 이 PN의 목표가 가치 객체인 빵의 획득에 있지 않고 빵을 먹기 전 역량단계에서 주체의 행동 규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정결예식 없이 빵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선(先)규정하는 비준을 내세워 빵을 먹는 행위를 생존문제가 아닌 정결문제로 뒤바꾸어 주체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언급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유다인(주체)은 빵(가치객체)을 먹기 위해 ‘손을 한웅큼의 물로 씻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설화자가 해설하는 긴 부분(3-5절)에는 이것이 더 확연해진다. 조상들의 전통은 외부(몸과 물건들)를 물로 씻는 것, 외적정결에 치중한다. 금기, 터부가 외적정결 행위에 걸려있다.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예수의 제자 몇 명에게 직접 묻지 않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에게 묻는다. 그

20) 이 자리는 보통 주체의 자리다. 그런데 텍스트에서는 상태주체(제자 몇 사람)가 더러운 ‘손’으로 대표된다. 주체의 대상화, 객체화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수에게 따져 물음으로써,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 그런데 이 사소한 일례(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것)는 개입자들의 신분으로 인해, 겐네사렛 근처 어떤 곳에서 있었던 사소한 해프닝을 초월하여 그 범위가 확장된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수를 베엘제불이 들렸다(3,22 참조)고 말했던 이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온 지역(예루살렘) 때문에 이 논쟁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예루살렘에는 종교의 최고기관이 있으며 거기서 모든 정결 체계를 관장한다. 그 가운데 음식정결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최고 권위를 등에 업고, 조상들의 전통의 수호자 자격으로 예수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여차하면 예수를 조상들의 전통과는 다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퍼트리는 금기시해야 할 터부의 대상으로 타도할 태세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최고 권위로 드높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가차 없이 단죄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권위 있는 대리자인 듯 예수에게 따져 묻는다. 그들의 단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배타적인 극단주의에 빠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사회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그들이 수호하는 조상들의 전통은 빵을 먹는 것보다 빵을 먹기 전 단계 곧 형식(격식)에 더 치중해있음을 기억해두자.

한글 성경에서 이 단락의 제목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은 자칫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예수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논쟁하는 대립된 두 설화 프로그램을 예상하게 한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을 받은 예수는 제자들의 행위(왜 더러운 손으로 먹게 되었는가)를 해명한다거나 혹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어놓으면서 그들이 발언한 것의 같은 층위에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인들 사이의 정결 문제를 초월하여 사람을 더럽히는 것, 보편적인 인간학과 관련된 것으로 정결문제의 지평을 넓힌다.

예수가 군중에게 말한 비유와 제자들에게 말한 비유의 설명에서는 정

결문제가 사람을 기준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과 ‘안에서 나오는 것’의 문제가 된다. 이것을 내적 정결 설화도식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묘사해보자.

(내적)정결 설화도식

조종	역량	실행	비준
하느님 말씀 $\Rightarrow$ 들을 귀{ $(\text{마음} \cup \text{말씀}) \rightarrow (\text{마음} \cap \text{말씀})$ }			정결/부정
밖에서 들어가는 것/안에서 나오는 것			

이와 같이 설화분석이라는 골격에서 모습을 드러낸 행위자 형상들은 형상분석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이다.

### 3. 형상 분석

#### 1) 조상들의 전통과 하느님의 계명(1-13절, 입술과 마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최고 권위로 내세우는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형상은 예수의 대답(6-13절)에서 이사야서와 모세의 율법을 통과하면서 변형을 겪는다.

‘**너희 위선자들**’: 예수는 먼저 대립각을 내세워 묻는 그들을 ‘너희 위선자들’이라 부른다. 위선자는 그리스어로 휘포크리테스 곧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를 뜻한다. 겉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낱말-형상은 텍스트에 들어오자마자 곧이어 인용된 이사야서에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라는 시니피에(의의)를 받는다. 곧 텍스트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나’(하느님)라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이 백성’의 입술(겉)과 마음(속)이 갈라진다. 공경은 입술의 두 기능(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가운데 말하는 기능으로써 겉으로 내보이



는 면이다. 그런데 마음 없이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은 ‘나’(하느님)를 헛되이 섬기는 것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가 그들의 질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말의 충격(force énonciative)<sup>21)</sup>을 통해 조상들의 전통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진리로 호출하는데 있다.

**‘조상들의 전통’:** 이 단락의 제목인 이 형상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과하면서 논쟁의 용어가 바뀌어버린다.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u>조상들의 전통(바리사이)</u>	→	<u>사람들의 규정들(이사야서)</u>	→	<u>사람들의 전통(예수님)</u>
하느님의 계명		입술 vs 마음 ↓		하느님의 계명 ↓

행보 처음에 최고 권위를 뽑내던 조상들의 전통은 이사야서를 거치면서 행보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계명과 대립되는 사람들의 전통으로 전락한다. 하느님의 계명은 버려두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들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조상들의 전통은 하느님의 계명에 근거하므로 하느님 말씀과 동일시되며, 이 자격에서 조상들의 전통은 최고 권위를 지닌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규정들’(7절)은 분명 3-4절에서 언급한 모든 유대인이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지켜야할 관습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그들의 가르침이 입술에서 그칠 뿐 마음은 멀리 있으니 하느님을 헛되이 섬긴다고 말한다.<sup>22)</sup> 마음 없이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은 조상들의

21) 안영주, 「형상과 만남 :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사탄의 태양아래’에 대한 기호학적인 접근」, 『기호학 연구』 29, 한국기호학회, 2011, 105쪽 참조.

22)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 말씀을 들으라고 초대한다.(신명 30,2 참조)

전통을 하느님의 계명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놓아)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붙잡는) 꼴이 된다. 하느님의 계명(기의)이 떨어지고 스스로 작동하는 ‘사람들의 전통’(기표)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과하면서 명확해질 것이다.

**‘예언’**, 생명을 향한 상호 주체적 관계로의 호출:

성경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인용한 것이다. 예언은 미래에 대해 말하면서 현재를 겨냥한다. 지금 마음을 바꾸어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에, ‘너’를 호출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는 ‘나’가 등장한다. ‘나’가 갈망하는 관계는 규정들을 지키는 정결/부정, 허락된 행동과 금지된 행동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만남을 통해 마음이 교감하는 상호 주체적 관계다. 그런데 ‘너희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전통은 입술로만 가르치는 규정이며 마음은 멀리 있다. 여기서 ‘입술’과 ‘마음’은 사람의 겉과 속의 대립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시니피앙들이다. 그런데 더러운 손으로는 빵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겉(형식)에 치중하여 빵을 먹는 행위의 본질적인 문제(생존문제)를 터부시하는 것이 된다. 생명과 마음의 열망은 하느님의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이것들과 분리된 채 입술로만 하는 하느님 공경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것으로 세워진 성전, 제도에겐 생명과 인권, 신권까지도 빠진 알맹이 없는 껍질이며 사상누각일 뿐이다.

**‘너희의 전통’**: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이제 예수는 ‘사람들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이라 말한다. 소유대명사 ‘너희의’를 ‘전통’과 결합시킴으로써 이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의지(vouloir)를 부각시키고 이로써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율법의 해석에서 계명의 가치를 비워버린다는 말이

다. 일례로 든 것은 모세 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다. 하느님의 계명에는 율법과 생명이 조화를 이룬다. 부모가 생명을 주며 대를 잇게 하므로 부모 공경(10절)과 하느님 공경(6절)에는 같은 어휘를 쓴다. 생명의 원천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의 해석에서는 부모 공양과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을 대치시킨다. ‘코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아무 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부모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만 예물을 바치면 된다고 가르침으로써 ‘너희가 전하는 전통’은 생명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한다. 발화문(너희가 전하는 전통)이 발화행위(하느님의 말씀)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곧 말을 책임지지 않는 복수주체들의 반복되는 말 행위가 책임지고 말하는 단수주체의 말을 질식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 ‘너희가 전하는 전통’ vs ‘하느님의 말씀’:

조상들의 전통이 왜 하느님의 계명과 이다지도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일까. 조상들의 전통은 그 복수성으로 인해 무수한 시간과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세세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으로서, 무수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거둬들여 해석해 온 결과물이다. 초기 의도와는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느님의 계명은 마음과는 떨어져서 입술들 곧 언어 또는 지식들로 마음은 없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제재인 조상들의 전통으로 고착화되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생명 존중도, 마음도 배제된 오로지 외적 정결만이 강요되는 지식의 벽(*mur de savoir*)<sup>23)</sup>에 갇혀있는 상태였다. 하느님의 계명(말씀)이 그 핵심인 마음(열망)과 생명과 동떨어져 그 자체로 작동하는 조상들의 전통에 갇혀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초래할까. 그것은 빵을 먹기 전 정결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빵을 먹는 이를 부정하다고 지탄하는 것이며, 코르반(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23) 안영주, 앞의 글, 105쪽 참조.

라고 말했다고 해서 부모에게 더 이상 아무 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보존 행위를 터부시하는 것이며, 하느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대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며 보호자이신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예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대뜸 “너희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지식의 벽에 직접 타격을 가한다. 벽이 단단하고 두꺼울수록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예수가 말의 충격(force énonciative)<sup>24)</sup> 요법으로 하느님 계명의 해석자이자 율법의 수호자로 스스로를 의인이라 자처하는 그들의 민낯을 폭로한 것은 그들이 간혀있던 지식의 벽을 허물고 마음으로 길을 내어 참 말을 되찾으라는 말의 주체로의 초대이다.

## 2) 비유와 비유의 설명(14-23절)

### ‘정결과 부정: 유다인의 인간학에서 보편 인류학으로’

이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외적실천(조상들의 전통)으로만 받아들인 유다인들의 세계에서 제기된 것이다. 예수는 군중들에게 말하면서 유다인의 세계에서 나와 보편적 인간학 곧 ‘사람’에 대해 말한다.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정결과 부정의 문제는 입술과 마음으로 표상화된 밖과 안의 대립을 초월하여, 방향성 곧 움직임의 대립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들을 귀’를 초대한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안’은 다시 뱃속과 마음으로 나뉘며, 몸 안에는 두 개의 통로가 있다. 음식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다. 음식의 통로는 입에서 뱃속을 통과하여 뒷간으로 나온다. 이 과정은 사람을 더럽히기는커녕 모든 음식을 분쇄하고 걸러내어 양분이 될 것은 흡수하고 아닌 것은 배출하는 피조계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배출된 것조차 다른 생물계에 거름이 되는 좋은 것이다. 모든 통하는 것, 모든 흐르는 것은

---

24) 같은 글, 105쪽 참조.

그 과정에서 깨끗해지고, 저절로 정화가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말씀의 통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한쪽 귀로 들어가 다른 쪽 귀로 나오는 길, 한쪽 귀로 들어가 입술로 나오는 길(앵무새처럼 들은 것을 반복하는 것), 귀(‘들을 귀’)로 들어가 마음을 거쳐 입술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길이다. 마음에 닿지 않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의 경우는 ‘들을 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다. 마음에 ‘들을 귀’라는 마음의 창이 없을 경우, 마음은 통하지 않는 닫힌 마음이 되며 온갖 나쁜 생각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다.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나쁜 생각들”이 거기서 나오며, 타인에게 악하고 유해한 태도나 행동의 원천이 되는 ‘생각, 계산, 갈망, 구상’들로서 12가지다.(21절) 6개는 복수 목록이고 6개는 단수 목록으로, 각기 마지막 낱말이 열거된 것들을 요약하는 기능을 한다. 복수 목록의 요약은 악의들이고 단수 목록의 요약은 어리석음이다. 악의들로는 불륜들, 도둑질들, 살인들, 간음들, 탐욕들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행위들이다. 가운데 세 가지는 십계명(7계명, 5계명, 6계명)에 속한다. 탐욕은 성경에서는 성적인 것과 관련될 수 있다.<sup>25)</sup> 어리석음은 칠십인역 성경에서는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이 어리석음에 속한다. 시기(mauvais oeil)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이고 시샘하는 시선을 말한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과대망상이다. 어리석음으로 요약된 이 여섯 개는 타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하는 것은 ‘더러움’의 여러 의미소 가운데 안에서 밖으로 나와 사람을 왜곡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난할 만한 형상만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 ‘더러움’은 물로는 씻어낼

25) 에페 4,19; 5,3; 콜로 3,5 참조.

수 없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어야만 한다.

###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귀로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말로써 음식에 대한 외적인 정결 규정들이 모두 단번에 폐기된다. 모든 음식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뒹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는 들을 귀를 제안한다. 마음과 맞닿아 있는 귀, 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로써 변화되도록 두는 마음. ‘들을 귀’를 찾은 타자의 말은 가장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밖으로는 말과 행동으로 타인들을 위한 유익한 것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밖으로 창을 하나 내어놓은 마음이 있는 사람 곧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입술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예배이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말과 행동이 될 것이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말했던 정결은 물로써 모든 더럽히는 얼룩을 제거하고 거기서 몸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서 보호할 수 없다. 고인물이 썩듯이, 밖으로 열린 창이 없는 마음에서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된다. 오직 타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 마음에 숨통을 터주는 길만이 관계의 구도로 나아가게 해 줄 것이며 참된 만남으로 초대할 것이다.

## IV. 터부에서 통(通)의 기호학으로(발화문에서 발화행위로)

마르코 복음 7장 1-23절에는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등장한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등에 업고 스스로 정결과

부정을 비준하는 심판관으로 나선다. 정결과 부정의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체계에는 너무도 확고한 규정들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개인적 판단이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규정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따라 이미 마련된 판결문(비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세상에는 조종과 감시만이 요구될 뿐,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주체는 필요 없을뿐더러 차라리 거추장스럽기 까지 하다. 의례적인 ‘실천’으로 사람을 옥죄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두고는 미리 심판하여 걸러내고, 자국 우선정책으로 국정통제를 강화하여 폐쇄적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곳에는 타자와 타자의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것은 어떤 여지도 두지 않는 화석화한 법(발화문)과 같아, 거기에 한 번 붙들린 사회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기계나 다름없다. 사회질서를 빌미로 의지적으로 사회를 쥐고 흔들려는 집단에게 전권을 내어준 사회에서 타자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며, 신비로운 가능성은 그 싹부터 제거되고, 희망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며, 꿈꿀 수 있는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질주하는 그런 세상이다. 미리 정해진 법을 등에 업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며 그 뒤에 숨어서 가르치며 억압하고 지배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살맛나는 세상이다. 거기에는 생명도 인권도 생존본능도 하느님까지도 존중되지 않으며, 다만 원칙과 규제와 억압만이 작동할 뿐, 자유로운 행동도 말도 자유로운 사유까지도 위험요소로 터부시 된다. 이렇게 터부와 금기를 남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는 다만 불행을 피하고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스스로 보고 듣고 접촉하기도 금하며 말하기조차 꺼리게 된다. 모종의 두려움을 앞세워, 집단의 말 혹은 법(발화문)이 개인의 말(발화행위)을 원천에서 막고 숨통을 옥죄기 때문이다.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지향하는 사회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는 정면으로 “너희 위선자들”이라 비판하고 나선다. 겉으로는 지고의 가치를 숭상

하고 추종하는 듯 원칙과 논리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사리사욕에 빠져 백성의 등을 쳐 제 잇속을 채우는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계명을 해석하면서 정작 그 계명을 주신 분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원천이신 분께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법의 실천, 규정들의 기계적인 실천만을 강요함으로써 본말을 전도(本末顛倒)하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너희 위선자들’이라 부르면서 또한 그들을 말의 참된 주체로 초대한다. 가면 뒤의 삶을 청산하고 마음에 창을 내어 하느님의 참된 말씀, 타자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다. 마음의 창으로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해야 한다. 타자에 대한 온갖 왜곡된 시선에서 탈피하여 타인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느님의 계명은 미리 심판(비준)이 정해진 법이 아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살아 있는) ‘말씀’이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나 지금 여기’에서 지성과 감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자의 말’이다. 타자의 말에는 원칙은 있겠으나 예외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마음을 건드려 감동케하여 일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이다. 타자의 말은 신비로운 가능성을 얘기하고 희망으로 벽치게 하며, 꿈을 노래하고 행복을 꿈꾸게 하는 그런 말이다. 어떤 이는 행복을 꿈꾸며 ‘이미친 세상에’<sup>26)</sup>라며 말의 충격(force énonciative)에 호소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드높이 솟아 있는 벽에 대고 ‘꿈을 꾀다’<sup>27)</sup>고 외쳐보기도 한다. 혹여 아는가, 지식의 벽을 뚫고 마음에 감히 잠입하려는 이런 미친 타자의 말에 누군가 마음이 통(通)하여 신비로운 가능성이 실현 가능한 것이 되고, 희망과 꿈이 현실이 되며, 더불어 살며 말이 통(通)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는지.

26) 브로콜리 너마저, 2집 앨범 졸업에 수록된 곡.

27) 서영은 작곡, 앨범 김과장 OST에 수록된 곡. 2017년 백상예술대상 축하공연 때 단역 배우 33명이 부른 곡.



## 참고문헌

- 박순자, 「성서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 마태 8,23-27 제압된 폭풍」, 『기호와 기호학』,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180~205쪽.
- 박인철, 『파리 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서인석, 『기호학 교육론』, 성바오로, 1989.
- 안영주, 「형상과 만남: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사탄의 태양아래’에 대한 기호학적인 접근」, 『기호학 연구』 29, 한국기호학회, 2011, 95~117쪽.
- \_\_\_\_\_, 「수치심과 폭력 그 해결점을 찾아서: 게라사에서 일어난 일(마르 5,1-20)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 연구』 33, 한국기호학회, 2012, 287~315쪽.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주석 성경 신약』,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10.

- AN Y.-J., *Figure et Rencontre: Approche sémiotique du roman de Georges Bernanos, Sous le Soleil de Satan*, Saarbrücken, EUE, 2010.
- Calloud, J., “Sur le chemin de Damas. Quelques lumières sur l’organisation discursive d’un texte”, *Sémiotique & Bible*, n° 37, 38, 40(1986) et 42(1987).
- Coquet, J.-C., *La quête du sens*, Paris, PUF, 1997.
- Delorme, J., *Lecture de l’évangile selon saint Marc, Cahiers Evangile* 1/2, Paris, Cerf, 1972, 가톨릭 성서모임 역, 『마르코, 복음서의 재발견』, 가톨릭 성서모임, 1980.
- \_\_\_\_\_, “Mise en discours et structures narratives ou la dynamique du récit”, dans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Mélanges A.J. Greimas)*, H. Parret et H.G. Ruprecht, éd., Amsterdam, Benjamins(1985), 709~718; J. Delorme, “Jésus et l’hémorroïsse ou le choc de la rencontre(Mc 5,25-34)”, *Sémiotique & Bible* 44(1986), 1~17; L. Panier, “La foi et le miracle. Propositions de modèle narratif pour les récits de miracles des évangiles”,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Mélanges A.J. Greimas)*, H. Parret et H.G. Ruprecht, éd., Amsterdam, Benjamins(1985), 771~782.
- \_\_\_\_\_, *Parole, figure, parabole. Recherches autour du discours parabolique*, Lyon, Presses Universitaire de Lyon, 1987.
- \_\_\_\_\_, “Sémiotique”, dans *Dictionnaire de la Bible Supplément* XII/67, Paris, Letouzey & Ané, éditeurs, 1992, pp.281~333.
- \_\_\_\_\_, *L’heureuse annonce selon Marc, Lecture intégrale du 2<sup>e</sup> évangile I*, Paris, Montréal: Cerf, médiapaul, 2007.

- Denis, B., *Précis de sémiotique littéraire*, Paris, Mathan, 2000.
- Geninasca, J., *La Parole Littéraire*, Paris, PUF, 1997.
- \_\_\_\_\_, “Le discours n’est pas toujours ce que l’on croit”, *Protée*, Université du Québec à Chicoutimi, 1998.
- Greimas, A-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_\_\_\_\_, *Maupassant. La sémiotique du texte: exercices pratiques*, Paris, Seuil, 1976.
- \_\_\_\_\_, *Du sens II*, Paris, Du Seuil, 1983.
- \_\_\_\_\_, *De l’Imperfection*, Périgueux, Fanlac, 1987.
- Greimas, A-J. et Courtès, J., *Sémoi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Univercité, 1979.
- Groupe d’Entrevernes, *Signes et Paraboles*, Paris, Seuil, 1977.
- Henault, A, *Le pouvoir comme Passion*, PUF, 1994.
- Martin, F., “Devenir des figures, ou des figures au corps”, dans Fontanille Jacques éd., *Le Devenir*, Limoges, PULIM, 1995.
- Neste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sup>e</sup> editio, 1993.
- Panier, L., “Polysémie des figures et statut figural des grandeurs figuratives”, dans Rémi-Giraud, Sylviane et Panier, Louis eds., *La Polysémie ou l’Empire des sens. Lexique, discours, représentations*, Lyon,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2003a.
- \_\_\_\_\_, “Récit et figure dans la Parabole des Mines(Lc 19). Un modèle pour une sémiotique du discours”, *Modèles Linguistiques*, tome XXIV-1, VOL 47: 97~108, 2003b.
- \_\_\_\_\_, “Sémiotique et études bibliques, évolutions méthodologiques et perspectives épistémologiques”, in *Destini del Sacro*, Congrès de l’AISS, novembre 2006, 안영주 역, 『기호학과 성경 연구: 방법론의 발전과 인식론의 관점』, 『신학전망』 170,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0, 44~73쪽.
- \_\_\_\_\_, “Ricœur et la sémiotique. Une rencontre ‘improbable’?”, *Semiotica*, 168 1/4(2008), pp.305~324.
- Park, S-J., *La transformation énonciative de l’objet de valeur et l’objet énonciatif, L’approche sémiotique de quelques récits évangéliques*, Sarrebruck, EUE, 2011.

## Taboo, the semiotic analysis on the mechanism of prohibition and transgression :

Tradition of Men and Commandment of God (Mark 7,1-23)

An, Yong Ju

We all pursue happiness. But if we try to exercise power with the wrong premise (presupposition) in relation to taboos, problem will arise. It is because Taboo is built on a basis: ‘not to have misfortune’ by definition. The so-called classification of dichotomy such as sanctity versus profaneness, purity vs impurity, the edible vs the inedible, what can be said vs what can not be said, is one of the core tasks of Jesus trying to overthrow in the Bible especially in the Gospels. Because this system that gives its priority to the Law becomes a ruthless tool that can reduce human beings into objects, not subjects at the slightest slip. What solution should be prepared for our society in order to establish human beings as true subjects, to stand as free human beings without being forced by the mechanism of permitting and prohibiting human beings by socio-political transgressive prohibition and control: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n Mk 7,1-23, there is an opposition between the Pharisees, the Scribes from Jerusalem (who want to oppress emphasizing the authority of the Law) and Jesus who reveals the commandment of God that frees man freely. But did the conflict only solve the problem? The semiotic analysis on this text will show a kind of catharsis by the figurative course that leads to the true encounter beyond the opposition. In other words, it's not a dichotomous distinction that produces conflict, oppression and opposition(resistance). It will lead the reader to a third structure, namely a relational structure that has context with each other.

The biblical semiotics adopted by the methodology of this article is a

sect of semiotics that bible scholars created in Lyon, France. They are one of the practical works of the school of Paris(Ecole de Paris). These biblists were called the Lyonian school, sometimes called ‘Groupe d’entrevernes’ sometimes ‘Ecole de Lyon’. They have developed and studied on the theories of the figure and the figurative course focused mainly in the Bible text. In particular the theory of ‘Figural’ which is encountered at the end of the figurative course contacts with the subject theory which is born at the end of reading. This semiotic reading is an excellent tool that starts with the dichotomous structure through textual analysis and will moves the reader to the relational structure through dialogue with the text.

Keywords : taboo, happiness, misfortune, school of Paris(Ecole de Paris), signifiant, figure, figural, enunciation, instance of the enunciation.

투고일 : 2017. 05. 19. / 심사일 : 2017. 06. 05. / 게재확정일 : 2017. 06. 12.